

첫방 '미스터리키친' 백종원, 설록 뺨치는 추리킹



'미스터리 키친' 백종원이 남다른 추리력으로 시청자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SBS 새 예능 '미스터리 키친' 1회에서는 셰프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추리하는 백종원과 김희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MC 김성주의 모습이

뛰어난 요리 실력 등 다양한 매력 재미 견인

이름 받아들이는 백종원은 "내가 아무리 못 만들어도 인간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건 못 한다"고 했고 김성주는 "담담하다"면서 페어플레이를 강조했다. 이후 화면에는 백종원과 김성주의 얼굴이 가려진 채 이들이 요리하는 순간 공개됐고, 추리의 방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희철은 김성주를 고수라고 착각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시식단으로는 '중식의 아버지' 유병형, '양식 마스터' 파브리치오, '맛 칼럼리스트' 박상현, '비주얼 감정사' 유민주, '한식의 바이블' 이원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그 어떤 힌트도 없이 백종원과 김성주가 만든 A 메뉴 앞다리를 스테이크와 B메뉴 공룡알 완자를 먹었고, 공룡알 완자에 대해선 "맛있다", "플레이팅에 신경 썼다", "제가 보기엔 모양새 만들기에 급급했다", "육즙이 많이 빠져있다"고 앞다리를 스테이크에 대해선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워킹하려고 대

충 만든 느낌이다", "맛이 요묘하다" 맛있다 아니고 맛없다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다"라고 평했다. 백종원이 압승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대결은 팽팽한 접전을 이뤘고 결국 3대 2로 승리한 백종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다시 한 번 웃음을 안겼다. 이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자 '미스터리 키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정체를 숨긴 핑크 셰프와 레드 셰프가 포함 대계를 가지고 음식 만들기에 돌입한 것.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지켜보던 백종원이 "핑크 셰프는 요리를 하는 분 같다", "미는 칼질이 쉬운 게 아니다"라며 셰프들의 정체를 정확히 추측했다는 점이다. 백종원은 이후에도 "두부를 튀기고 머랭을 만들고 핑크 셰프가 중국 요리를 하는 것 같다. 탕이 될 거다", "레드 셰프는 감자, 우유, 계란

노른자 계살이 있으니 튀길 것 같다. 크로켓을 만들려나 보다"라고 설록 뺨치는 추리력으로 정답을 맞혀 감탄을 자아냈다. 백종원의 예상처럼 핑크 셰프는 계살 구름 스프롤, 레드 셰프는 대개 크로켓을 만들었고 시식단은 만장일치로 핑크 셰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체가 밝혀진 레드 셰프는 배우 설인이었으며, 핑크 셰프는 요리연구가 이해정인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이어질 대결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날 백종원은 뛰어난 요리 실력부터 추리력까지 다양한 매력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견인했다. 그가 어쨌든 '예능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갈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미스터리 키친'은 단 2회 분량의 파일럿으로 이번 방송의 반응에 따라 정규 편성이 결정되는 상황. 이에 백종원의 색다른 매력이 심분 발휘된 '미스터리 키친'이 과연 정규 편성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악인전',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위이자 MCU(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범죄도시 및 '신세계'와 동일한 흥행 속도이다. 뿐만 아니라 개봉 전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 레이스를 시작한 '악인전'은 올 5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단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5월 극장가의 다크호스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4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한 '악인전'은 좌석 점유율 1위는 물론 5월 19일 현재 실시간 예매율까지 1위를 차지하며 계속해서 흥행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악인전'의 흥행 원동력은 관객들의 뜨거운 입소문이었다. '악인전'은 CGV 골든에그지수 98%, 네이버 영화 관람객 평점 9.12점을 기록, 평점 고평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극장가에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 액션 영화 '악인전'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제공 ㈜키위미디어그룹 | 공동제작 ㈜에이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 배급 ㈜에이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키위미디어그룹 | 제작 ㈜에이엔터테인먼트 인문트 | 공동제작 ㈜트윈필름 | 감독 이원태 | 출연 마동석, 김무열, 김성규) 우연히 연쇄살인마의 표적이 되었다 살아난 조지프라비 보스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미친개, 타협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연쇄살인마 K를 쫓으며 벌어지는 범죄 액션 영화 '악인전'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거침없는 흥행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악인전'은 18일 455,074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039,881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역대 3



다비치·장성규, '아는형님'으로 독한 예능 신고식



'아는형님' 다비치·장성규가 관록 있는 예능감을 발휘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서는 여성 듀오 다비치와 방송인 장성규가 전화생으로 등장했다. 이날 장지체가 아닌 전화생으로 교복을 입고 등장한 장성규, 아형 멤버들은 "JTBC에서 쫓겨난 거 아니었나", "외부인이 왜 왔냐"며 핀잔했다. 하지만 장성규는 "너희가

보고싶어서 왔다. 반겨줘서 고맙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강호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성규에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어? JTBC와의 의리는? 우리 친구들하고의 추억은?"이라며 물어볼었다. 이에 장성규는 "프리 선언 후 첫 방송이다. 너무 어색하고 긴장이 돼서 며칠 동안 잠도 2시간 밖에 못 잤다"고 토로했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장성규에게 "프리선언할 줄 알았다. 그간 '아는형님'에서 보여준 게 굉장했다"며 칭찬했다. 아형 멤버들이 장성규의 성공에 대해 묻자 이해리는 "진현무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답했고, 강민경은 "김성주도 안 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강호정은 JTBC 아나운서를 관두고 프리 선언을 하기까지 가족의 반대는 없었는지 물었다. 장성규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반대했다"며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는 모습을 다 봤다. 재수, 삼수 할 때 모습과 공무원 시험, 회사 시험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향한 리스펙이 생겼다. 아내가 당신이 가는

길을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장성규는 "과거 회사 몰래 행사를 한 적도 있는데 걸려서 작년 7월에 시달서를 쓴 적도 있다"며 "이제는 행사계의 장운정이 되고 싶다"고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개인 SNS에 달리는 악플을 언급했다. 악플이 달릴 땐 자신이 직접 댓글을 단다고 그는 "나만의 소통법이다"라며 "내가 관중을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데뷔해 벌써 11년 차를 맞은 다비치는 "우리는 솔로 활동을 하면 좋지 해체는 안 한다. 누구 하나 콜백 나와 된다"며 서로를 향한 믿음을 드러냈다. 이어 "서로 알고 지낸 지 연년생 포함해서 14년이다. 아마 현역 중 최장수 듀엣일 것"이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성격이 잘 맞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입학신청서를 제출한 다비치, 이해리는 정래희망으로 '잘사는 것'이라 적었고, 강민경은 '다비치 공무원 시험, 회사 시험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향한 리스펙이 생겼다. 아내가 당신이 가는

형 멤버들에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이에 아형 멤버들은 "그때가 되면 몇 명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어 웃음을 안겼다. 다비치가 짧은 장점은 '화음'이었다. 다비치는 즉석에서 버스 남자를 몰라, 가사와 몰라 날개 없는 천사, 김영철 '따르릉', 다비치 히트곡 등을 부르며 완벽한 화음을 보여줘 호응을 얻었고, 장성규 역시 장점을 상대모사로 내세워 이진아, 김예민, 불발간사준기 모창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해리는 자신이 노래를 불렀을 때 누군가 한 말 중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주제로 냈다. 정답은 밥맛 떨어졌다였다. 이해리의 슬픈 솔로곡을 들은 강민경이 과거 만났던 남자를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던 것. 이해리는 "그동안 평가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평가는 처음이었다"며 당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또 장성규는 아형 멤버들 중 고마웠던 사람으로 이상민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민은 장성규가 신인이었음에 함께 사인회에 참여했고, 당시 팬이 없던 장성규를 위해 그에게 사인을 요청했던 것. 이상민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의 장성규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왜이렇게 계산적이냐"며 핀잔을 줘 웃음을 자아냈다.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MV 3억뷰 돌파

그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했다.

18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12일 발매한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이날 낮 12시 47분쯤 유튜브 조회수 3억 건을 돌

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10번째 3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며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차체 경신했다. 뉴스시

오늘의 순세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음력 4월 16일)



▶**음력** 현실을 직시하라. 과거 집착은 한낱 퇴행을 자초할 뿐이다. 빛깔 없는 삶은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법. 미혼자는 친구가 애인이 되어 좋은 소식이 있을 듯. 나, 나, 컵성씨는 등, 복간 사람의 뜻에 순리대로 따름이 좋겠다. 늦은 밤길은 고민을 일출 수.



▶**음력** 지나친 감정은 건강에 해로울지 모르나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과 깨어 있음은 필요하겠다. 고비 풀린 소는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진정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법. 쥐, 말, 돼지띠의 도움이 미래지향적이다. 남쪽에는 가지말 것.



▶**음력** 무조건 사랑한다는 달콤한 사랑발림 한 마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현재 업종 변경은 무리. 방향은 동쪽 길함.



▶**음력** 인기운이 강하고 논리적인 당신의 오늘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더해지면 금상첨화. 지나친 눈치작전은 자칫 달성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순간적인 실수를 했으면 인정해야 상대 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나, 나, 컵성씨 투자와 동업은 금물.



▶**음력**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덕에 노력으로써 목적에 도달하는 격. 빨리빨리 외치다가 힘에 겨운 일 생길 것이다. 느긋한 자세로 재검토함이 좋을 듯. 억지 자존심은 버릴 것. 3, 7, 8, 12월생 과거에서 해방될 것.



▶**음력** 풍안의 자식은 떠난지 오래. 지나친 보호 본능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무리한 욕심은 근심 걱정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주어진 환경을 재검토하고 마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



▶**음력** 수확은 뿌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법. 불로소득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삼갈 것. 나, 나, 컵성씨 튼튼한 기반을 다질 때. 3, 4, 10월생 유류업 종사자는 승산이 있겠다. 그러나 7, 8, 9월생은 노란색을 피할 것.



▶**음력** 예리고 순한 천사 같은 당신은 많은 친구들을 두었다. 하지만 2, 7, 11월생은 친구로 인해 배신의 흉문이 있다. 상대를 경계하기보다 진심을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돈돌이는 금물. 나, 나, 컵성씨 여행중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음력** 재주는 있으나 추진력이 부족하다. 추진력만 보강되면 재물도 명예도 얻을 수. 1, 5, 8월생은 자만심에 빠지지 말 것. 액운을 예고한다는 것 잊지 마라.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도움을 주니 이익이 없어도 마음이 후속할 수.



▶**음력** 이상은 높기만 하고 해결되는 일 없으니 번덕만 늘어가는구나. 늘어놓지만 말고 주위 담을 줄도 알아야 할 때. 주위 정리 정돈함은 어떨지. 긴 세월동안 품고 있던 모든 걸 털어놓으니 원도 없고 한도 없다.



▶**음력** 새가 동지를 서, 남쪽으로 떠나는 격. 사업상 변동수 있겠으니 심사숙고하여 진행함이 좋을 듯. 모든 일에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 2, 5, 12월생 동업은 북쪽이 길하며 동쪽에 구설수 있으니 연행 조심할 것.



▶**음력** 첩첩산중 어두운 등굴에 등불을 밝히는 이 바로 당신이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기다려라. 2, 4, 9월생과의 동업은 북쪽이 길하며 나, 나, 컵성씨는 구설수 있으니 연행 조심할 것. 노란 의복이 힘이 될 수 있겠다.